

오순절 후 열다섯 번째 / 새가족 환영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9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 47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8 번 시편 9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4:19-31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시편 136 편”	찬양대
설 교 Sermon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Going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는 믿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46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 39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생각과 진실되지 못한 말과 죄악된 행동을 여과없이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오니,

다시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 27, 고전 3:16,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개역개정 **출14:29**)

“But the Israelites went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with a wall of water on their right and on their left.” (NIV **Exodus 14:2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8 (주일)	9/19 (월)	9/20 (화)	9/21 (수)	9/22 (목)	9/23 (금)	9/24 (토)
본문	삼하14 고후7 겔21 시68	삼하15 고후8 겔22 시69	삼하16 고후9 겔23 시70,71	삼하17 고후10 겔24 시72	삼하18 고후11 겔25 시73	삼하19 고후12 겔26 시74	삼하20 고후13 겔27 시75,76

말/씀/사/경/회 (주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강사: 한병철 목사)

말씀사경회 ① (9/23금 오후7:30)	“무너진 성벽, 무너진 마음” (느1:1-5)
말씀사경회 ② (9/24토 오전6:30)	“비웃는 사람, 비전의 사람” (느4:1-6)
말씀사경회 ③ (9/24토 오전8:30)	“지역사회 선교세미나”
말씀사경회 ④ (9/24토 오후7:30)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느8:1-18)
말씀사경회 ⑤ (9/25주일 오전10:00)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느11:1-2)

지난 주일(9/11)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6)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출 11:1-18)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일명 ‘Va Maris’라고 불렸던 지중해 해안길 대신, 홍해로 가로막힌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우회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출14:4)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다들 광야 길로 우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목격한 이후로는, 온통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 안에는 믿음이 발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통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출14:13-14)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대항하여 싸우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